

단 한 번 만난 적이 없는데도 늘 곁에 있던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충무공 이순신, 그의 이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기도 하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 남들이 몸을 사리고 한 발 물러서려 할 때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한 발 앞서 나아간 사람, 원칙을 중시하되 휘하 부하의 궁핍한 사정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마음 따뜻한 상관이었으며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수이기도 했다. 인간적인 리더십과 대쪽 같은 성품,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전략가적 기질로 대변되는 그의 일면들은 변방의 장수가 아닌 민족의 영웅, 지상이 아닌 천상에 가까운 존재에 가까웠다. 때로는 그가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으니, 솔직히 현실감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다가 올해 초 30대 중반이 지나서야 난생 처음 제대로 난중일기를 완독하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펼쳐든 난중일기에는 성웅의 틀을 벗은 인간 이순신이 살아 있었다. 일기 너머로 보이는 그는 장수일 때 단순히 부하들을 엄격한 군율과 원칙으로 다스리지 않고 부하들의 사정에 귀 기울였으며,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고 노모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오래 계속된 싸움에 지쳐 몸져 눕기도 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전쟁 중에도 거의 빠지는 일 없이 꾸준히 써내려간 자기 고백들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그의 육성이다. 역시나 군인답게 일기는 짧고 명료하며 말투도 대체로 무뚝뚝하지만, 문득문득 비집고 나오는 그의 진심과 인간적인 면모는 일기를 읽는 나까지 함께 웃고 울게 만들기도 했다. 3개월에 걸쳐 난중일기를 완독하고 난 뒤, 그에 대한 호기심은 한층 더 강해져 있었다. 글이 아닌 실체로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고 싶어졌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 바람은 머지 않아 이뤄졌다. 우리 부부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남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수를 시작으로 통영까지 동선을 짜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깊은 곳들을 들르게 된 것이다. 출발일이 다가올 수록 마치 학창 시절 수학 여행을 기다리던 때처럼 설렘이다. 여행을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건만, 이번만은 달랐다.

여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전쟁을 대비했던 장소이자, 1593년(선조 26년) 8월부터 1601년(선조 34년)

3월까지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이었던 지역이다. 그만큼 그의 발자취가 곳곳에 문화 유적으로 보존돼 있는 고장이다. 우리 부부는 남도 여행을 시작에서 여수에서 1박 2일을 머물렀는데, 그 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의승군이 주둔했던 홍국사, 최초로 거북선을 만든 선소 유적, 조선 수군들이 칼을 갈고 무기를 수리했던 세검정, 현대의 기술로 재현한 거북선이 있는 이순신 광장, 충무군이 전라좌수영 본관으로 사용했던 진남관, 국내 최초로 세워진 이순신 사당인 충민사, 충무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자운스님과 옥형스님이 지은 석천사까지 어딜 가도 이순신과 수군의 역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여러 곳을 다녔건만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선소를 꼽겠다. 그러면 아마 질문한 이는 대체로 의아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선소는 충무공 이순신이 군관 나대용과 함께 거북선을 만든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진남관이나 충민사, 홍국사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다지 흥미를 끌 만한 볼거리도 없다. 가막만의 끝 그것도 후미진 위치에 있어서 코앞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수 앞바다도 제 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가 선소를 찾았을 때는 바닷물마저 빠져나간 때라 검은 개펄이 그대로 드러나 그 모습이 황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함께 간 남편은 금세 흥미를 잃고 도중에 천천히 구경하고 올라며 먼저 차로 돌아갔을 정도니, 아무리 우리 역사에서 거북선이 갖는 의미가 크다지만 이쯤되면 누구라도 왜 하필 선소를 골랐느냐고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순신하면 거북선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거북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규모나 수량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보는 거북선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약 200년 뒤인 정조 19년(1795년)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이충무공전서의 설명을 근거로 할 정도니, 얼마나 관련 자료가 귀한지 짐작이 된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베 29필을 받았다. - 임진년 2월 8일

일찍 조반을 먹고 배를 타고 소포로 갔다. 쇠사슬을 가로질러 건너 매는 것을 감독하며 종일 기둥 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해 보았다. - 임진년 3월 27일

오늘 처음으로 돛베를 만들었다. - 임진년 4월 11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 보았다. - 임진년 4월 12일

난중일기에도 몇 차례 거북선의 제작 과정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 그래도 거북선에 쓸 돛베를 받았다거나 대포 쏘는 훈련을 했다는 걸 보면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이미 거북선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다.

이쯤해서 다시 선소 이야기로 돌아와야겠다. 얼핏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는 선소는 임진왜란의 주력선인 거북선을 만들기에 더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가막만의 최북단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은 데다, 앞에서는 가덕도와 장도가 방패 역할을 하고 뒤에서는 망마산이 등지고 있는, 자연이 만든 천혜의 해안 요새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1591년 유성룡의 천거로 전라좌수사에 부임하자마자 전쟁 대비를 시작했는데, 이전부터 이미 그는 전쟁이 터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해부터 군비 확충에 전력하고 군대의 기강을 새로이 하였다. 화포를 개량하고 왜군의 액점인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병법을 연구했다. 이듬해인 1592년에는 거북선을 완성시켰는데, 같은 해인 1592년 4월 마침내 그토록 우려했던 왜란이 발발했다. 난중일기 속에서 거북선에서 지자포와 현자포 발사 훈련을 했다고 기록된 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이었다.

날짜를 머릿속으로 새기며 굴강에 서서 여수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긴박하게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된다. 소금기를 실은 바람에도 매일 같이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임박한 전쟁을 대비했을 충무공과 이름 없는 수군들의 비장함이 실려 있다. 빈 포구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와야 한다.’ ‘바다로 나아가 나와 우리 가족을, 내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그가 바라보던 풍경을 본다. 물론 장군은 태평하게 바다를 감상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에 긴장하며 매일 같이 선소에 나와 거북선의 완성을 지켜봤을 것이다.

거북선은 여수 선소 외에도 인근의 본영 선소, 방답진 선소까지 총 세 곳에서 건조되었는데, 이렇게 완성된 거북선은 그 후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 투입되어 ‘귀선’으로 불리며 조선 수군의 주력선 역할을 했다. 여수를 시작으로 옥포, 합포, 당항포, 울포, 노량, 명량, 한산도 등에서 거둔 승리는 끝내 조선을 왜구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했는데, 해전 불패의 배경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면 그 끝엔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은 타고난 영웅이자 전략가의 모습이다. 어릴 적부터 또래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을 도맡아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무과해 급제한 뒤, 해전에서는 23전 23승 무패 성적을 거둔 장수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무관에 임관했을 만큼 군인으로서 비범한 자질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다. 과직과 백의종군을 거듭하며 힘들게 무관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로 그 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북쪽 변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하는 육지전 경험만을 쌓았으니 해전 전문가일리도 만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범함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가 타고난 전략가나 지도자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는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노력형 인물이었으니까 말이다. 충

무공은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하는 순간부터 해전에 대한 연구와 전쟁 준비를 동시에 이루어진 셈인데,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거북선일 터였다.

4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이 살아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하지만, 막연하게 옛 영웅을 기다리기보다는 그가 평범한 속에 감춰져 있던 비범함을 발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짚어보는 편이 현실적이겠다. 이 시대에는 지금에 맞는 영웅이 필요하다. 충무공이 순신이 성실함과 치밀함, 그리고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시대에 맞는 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시켰듯이, 각계 각층의 고민과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사회 곳곳에서 영웅들이 탄생할 것이라 희망을 품어 본다. 멀리서 큼직한 구름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온다. 한참 거북선의 모습을 상상했던 때문인지 생김새가 뚱뚱한 돛단배를 닮은 것도 같다. 저녁 때가 다 되었는지 구름이 가던 길을 해가 앞지르다, 이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 동안에도 구름은 아직 내 머리 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